

지역 소식통

세계유산도시 고창
수학여행단 유치 총력

전북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1천만 관광객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수학여행단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전국 초·중·고 1만2000여개 학교에 수학여행 홍보물과 심덕섭 고창군수의 유치 서한문을 발송했다.

주요 관광지에 대한 설명과 음식집 숙박업소 정보, 관광지도, 체험프로그램 등이 담겼다.

고창군은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특별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수학여행 사전신청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하면 학생들에게 관광기념품을 나눠준다.

고창 주요관광지를 형상화한 무드등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다. 요청하면 전담 문화관광해설사와 동행하여 여행할 수 있다.

고창군은 향후 수학여행과 단체 관광객 유치 관계자를 초청해 세계유산관광지를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장애인 · 노인 등
보행 약자 이동권 주력

정읍시가 장애인과 노인 입산부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은 점포 앞의 문턱 때문에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접근과 출입이 어려운 생활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무설치 시설이 아닌 300㎡ 미만의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경사로는 알루미늄, 철관, 방부목 등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현장 여건에 맞춰 설치된다.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점포는 오는 28일까지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단,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입차인의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운곡 랍사르습지' 관광상품 개발

고창군, '강소형 잠재관광지 공모' 선정... 다채널 홍보마케팅 등 관광콘텐츠 발굴

고창군 운곡랍사르습지가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키워진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강소형 잠재관광지' 구축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은 균형 있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의 성장 잠재력 높은 관광지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고창 운곡랍사르습지는 전액 국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3월부터 관광공사전북지사와 협력해 운곡습지 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 컨설팅과 온·오프라인 홍보, 관광콘텐츠 개발, 여행업체와 협업을 통한



고창군 운곡랍사르습지가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 로 키워진다.

연계 상품 판촉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운곡 랍사르 습지는 세계관광기구 선정 최우수 관광지, 세계 100대 지속 가능한 관광지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 등 국내 최고

의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전략적인 관광마케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재난관리 신속 대응체계 구축해"

심덕섭 고창군수, 재난관리평가 기관장 인터뷰 진행

심덕섭 고창군수가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15일 오후 군수실에서 전라북도 재난관리 평가기관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라북도 평가위원회(전북도청 직원과 민간위원 2인)로 구성)가 기관장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의지와 비전 등을 확인했다.

심덕섭 군수는 이날 평가단에게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비전과 추진계획, △위험요소 극복을 위한 정책, △재난안전부서 역량 제고를 위한 인사·조직 강화·인센티브 계획, △재난안전분야 예산 적정여부, △교육·홍보·행사 등에 대한 지원 추진

계획, △고창군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특수시책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앞서 고창군은 재해위험이 있는 하천정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풍수해생물원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또 군민안전보함 확대, 환경방사선량 개방형 알리미 설치사업, 고창군 전체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 군민안전에 대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군정을 펼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 태세를 확립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형 '일자리정책 추진단' 본격 출범

부시장 단장 · 일자리 관련 부서장 12명 구성 일자리정책 총괄

정읍시가 본격적인 일자리 만들기예 나섰다.

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둔화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일자리정책 추진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단을 열었다.

일자리정책 추진단은 김형우 부시장을 단장으로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농촌 일자리, 취업 교육 4개 분야의 일자리 추진 관련 부서장 1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각 부서의 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단 운영계획과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또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일자리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정읍고용플러스센터와 취업 연계센터, 청년지원센터 등 취업 관련 관계기관도 함께 머리를 맞췄다.

시는 올해 정읍시 일자리 창출 목표를 8,571명으로 세우고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2월 현재 5,35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는 일자리정책 방향 설정과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해 월 1회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고, 수시로 발생하는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의할 예정이다.

김형우 부시장은 "앞으로 일자리정책 추진단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인한 구인난을 해소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13개 읍·면대상 창신비상 군민소통대화 성료

권익현 부안군수가 군민들과 소통하는 화합의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한 창신비상(創新飛翔) 군민소통대화가 15일 위도면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6일 부안읍을 시작으로 포문을 연 이번 군민소통대화는 "창신비상(創新飛翔) 확실한 변화,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하루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민선8기 핵심비전을 공유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민소통대화에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많은 군민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마을 안길포장, 배수로 및 하수도 정비 등 총 288건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받았으며,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은 즉시 현장확인 후 신속히 추진하고 그 밖의 건의사항도 제도개선, 재정여건 등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민원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업무 협약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6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과 부안군 특화 소스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정갈을 활용한 부안군 특화 소스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협력, △부안군 특화 소스 제품화를 위한 연구 및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특화 소스류 영양학적 가치 및 판매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한 상호 공동협력이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부안군수와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이 소중함 협약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상호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식품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은 부안군 특화 소스식품산업 육성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스식품산업 연구개발과 신제품(모체소스, 파생소스, 응용소스) 출시를 위해 부안군과 식품진흥원이 앞으로 든든한 파트너이자 조력자로서 더 많은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아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농기계 구입 지원... 19억7000만원 투입

정읍시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 해소와 기계화 영농추진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 현장에 필요한 농업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9억 7천만 원이 투입된다. 트랙터·콤바인·농업용 드론 등 수도자에 필요한 농기계 9종에 대해 30%를 지원하고, 승용관리기와 승용제초기 등 전작 농기계 9종에 대해 50%를 지원한다.

또 고령농가와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 맞춤형 소형농기계에 대해서는 60%의 지원금을 보조해준다.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시는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농기계 활용 능력과 영농규모, 보조금 수혜이력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539-622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지원이 일손 부족 완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